

# 목정호 붕어섬, '관광 특수' 활짝 남원시, '농지 전수조사' 착수

### 임실군, 석가탄신일 연휴 3일간 2만5000여명 찾아... 누적 방문객 19만명 돌파

임실군이 석가탄신일 황금연휴 기간 목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에 전국 각지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관광 특수'를 특별히 누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3일간의 황금연휴 동안 목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2만 5천명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동절을 낀 황금연휴 기간에도 나흘간 2만 3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올 봄 목정호 일대는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전국적인 붐꽃 명소로서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6,000㎡ 규모에 2만4천본의 작약이, 운종리 작약밭에는 7,200㎡규모에 3만본의 작약이 만개해 압도적인 꽃의 향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각지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과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은 19만명을 돌파했다.

실제, 지난 24일에는 목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유료 입장객만 9,386명을 기록해 출렁다리 개통 이후 단일 일차 기준 역대 최대 입



임실군이 석가탄신일 황금연휴 기간 목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에 전국 각지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관광 특수'를 특별히 누렸다.

장객수를 경신했다. 또한, 입장료 매출액만 개통이후 6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황금연휴 3일간 8천1백만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목정호에서만 입실치즈 및 유제품과 입실엔치즈하우스 목정호점 내에 있는 카페매출이 3일간 1억 2천 4백만원을 기록했으며, 목정호 한우와 매운탕 전문점 등 인근 음식점과 카페들도 연휴기간 내내 특수수를 누렸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 입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만 3만4천명에 달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입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 9천 5백만원에 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입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입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 농지 투기 차단·체계적 농지 관리 기반 구축 위해 내년까지 추진

남원시는 농지 투기 차단과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6월부터 2027년까지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 남원시는 조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39명 규모의 농지조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남원시 전체 농지 136,111필지, 16,588ha며 2026년 12월 말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3,583필지(15,440ha)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나누어 강도 있게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기본조사(86,838필지)에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물론,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 구매 내역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36,745필지)'는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필지를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행위, 무단 농지 전용, 휴경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특히 전수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남원시는 지난 2025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스마트 영농관리서비스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남원시 전체 농지의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조사에 적극 활용한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결합해 불법 전용이나 위법 의심 농지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기본소득 연계 지역 선순환 해법 모색

### 순창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부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청년 서포터즈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기본서비스 기반 창업과 공동체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조직 18개소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현실과 한계를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청년 서포터즈 '농촌의 아이들'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핵심 과제로 단순한 시설·공간 부족이 아닌, 사람과 사람, 주민과 조직, 서비스와 수요를 연결하는 구조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먼 단위 지역의 경우 평균 2천 명 내외의 제한된 소비자장과 고령화로 인해 서비스 공급과 공동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다.

먹거리·문화·교육·돌봄·이미융·생활서비스를 결합한 권역별 순회형 복합장터를 운영해 주민 이동 부담을 줄이고, 기본소득 소비를 지역경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부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청년 서포터즈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제 순환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핵심 조건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 기반 마련이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머무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와 자아실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주거·일자리·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지역 코디네이터' 또는 '조력자' 역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주민 욕구를 파악해 경제·돌봄·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계하는 현장 중심 인력이 있어야 지속적인 참여와 지역의 자생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경제·복지·돌봄·공동체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간 연계와 실행을 총괄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선님은 정치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 최영일 선거캠프, 진보당 전북도당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강구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의 '상식 밖 허위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황제졸업'이라는 진보당 전북도당의 의혹에 대해 최영일선거캠프에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 후보는 지난 2008년에 전주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하여 여러 가지

사적으로 10여년이 지난 2018년 8월에 졸업했다. 이미 대학졸업을 했음에도 진보당은 2019~2021년 최영일 당시 도의원이 대학에 재학중인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사실인양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게다가 도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아 학위를 수여받은 것처럼 이른바 '황제졸업'이라는 프레임에 씌워 최 후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음해하고 있다. 이

는 진보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최영일캠프 구본길(88)신대본부장은 "정치도 도가 있는 법이다. 진보당의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순창군의 한 유권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많다. 이는 순창군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번 진보당의 '황제졸업 허위 의혹'은 진보당 오온미 후보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순창군, 외국인 유학생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성료

순창군이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유치에 힘쓴 결과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황토열매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군의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체험비 보상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됐다.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OPLE, 로컬관광 콘텐츠 기업 '로컬잇'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순창의 매력적인 농촌문화와 체험형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고추장 만들기 체험



△농촌마을을 숙박 △야외 운동회 △바라하는 별보기 등 다채로운 농촌 콘텐츠를 체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토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충헌 광통부(廣通樞)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